

“내실 경영·지역 상생...초우량 100년 광주은행 거듭나겠다”



2일 광주은행 본사에서 열린 '2024년 갑진년 시무식'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2024 갑진년 시무식서 비전 선포...미래 경쟁력 제고 등 5가지 실천과제 제시

“초심을 잃지 않고 ‘고객’과 ‘실력’, ‘확실한 경쟁력’을 기본으로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돌파해 초우량 100년 은행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이 2024년 갑진년 시무식을 갖고 100년 은행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있는 경제·금융 환경 속에서, 자연경제 선순환과 내실 있는 향토은행 역할을 위해 임직원들은 그 뜻을 하나로 모았다.

광주은행은 2일 2024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한 시무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서 광주은행 임직원들은 2024년 새해실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올해 또한 어려운 경영환경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실 있는 질적 성장의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100년 은행으로의 성장을 다짐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신년사에서 현재와 같이 급변하는 금융·경제 상황에서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적기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내실경영 기반의 균형성장 ▲미래경쟁력 제고 ▲지역 상생 경영 ▲시너지 강화 ▲소비자보호 강화의 5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따른 세부 실천방안으로 ▲건전성 관리 프

로그럼 고도화·핵심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IB자산 다각화를 통한 새로운 수익원 확보·혁신 금융서비스 창출 및 기반사업의 외연 확대를 요구했다.

이어 ▲비대면 영역의 사업 효율화·디지털 사업 수익성 강화·대면 영업 채널의 효율성 제고 및 편의성 강화·효율적인 인력 운영·JB증권 베트남의 새로운 수익 기반 마련도 주문했다. 무엇보다 지역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 금융지원과 자체 상생금융 및 포용금융 확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밖에 지역사회 환원 확대를 통한 동반성장그룹 내 계열사 및 노동조합과의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유기적 시너지 창출, 올바른 윤리의식에 기초한 건강한 영업문화 확립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고금리·고물가에 이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취약 차주 급증, 실리콘밸리은행의 디지털 뱅크런, 크레디트스위스 은행의 금융위기 우려 확산 등 금융권 전체가 혼돈에 빠지는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내실성장을 이끌어내며 지역 대표은행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에 활

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소기업 동반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매년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지역에 환원하는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의 핵심 역할에 앞장서 왔다.

이 같은 우수한 경영상태와 지역사회 환원 성과 등을 통해 광주은행은 지방은행 브랜드 파워 6년 연속 1위, 3년 연속 지역 재무자 평가 최우수 등급, 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우수사례 선정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무엇보다 고객과 지역민으로부터 지역밀착경영에 대한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게 광주은행의 설명이다.

고병일 광주은행 은행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임직원들은 숭한 어려움 속에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탄탄한 내실성장을 이루었다”며, “2024년은 디지털 대전환의 가속화와 함께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 혁신 적용으로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고금리·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뉴 레짐(new regime) 시대를 맞아 한계 차주들의 부실 우려 등 어려움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가계대출 2조 넘게 증가...8개월째 늘어

5대 은행, 지난달 잔액 692조4094억...증가폭은 축소 주택담보대출 3.6조 늘고 신용대출은 1.2조 줄어들어

주요 은행 가계대출이 지난 한 달 새 2조원 넘게 늘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12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92조4094억원으로 11월(690조3856억원)보다 2조2238억원 증가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해 5월 1년 5개월 만에 처음 늘어난 이후 8개월 연속 증가했다. 다만 증가폭은 10월(3조6825억원), 11월(4조3737억원)보다 축소됐다.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 2022년 말(692조5335억원)보다 1241억원 줄었다.

세부적으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한 것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다.

12월 말 주담대 잔액은 529조8922억원으로, 한 달 새 3조6699억원 늘었다. 주담대 증가 폭은 11월(+4조9959억원)보다 축소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10월(+3조3676억원)보다 큰 수준이다.

반면 개인신용대출(잔액 106조4851억원)은 1조2340억원 감소했다.

신용대출은 지난해 10월(+6015억원) 1년 11개월 만에 증가했다가 두 달 연속 줄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집담대출 등 실수요를 중심으로 주담대가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기업 대출은 주춤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대출(잔액 630조8855억원)이 2726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대기업 대출(잔액 136조4284억원)은 1조8835억원 줄어, 2022년 12월 이후 1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5대 은행의 정기에금은 지난달 19조4412억원(868조7369억원-849조2957억원) 줄었다.

반면 정기적금은 11월 말 45조1264억원에서 지난달 말 45조8632억원으로 7368억원 늘었다.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은 같은 기간 598조741억원에서 616조7480억원으로 18조439억원 늘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업들이 연말 결산 시점에 맞춰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유류 자금을 요구불예금에 넣어두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농협광주본부, 현장경영으로 힘찬 새출발

이현호 광주본부장, 임곡농협 관내 농가 찾아

최근 취임한 이현호 농협 광주본부장이 새해 첫 일정으로 농촌 현장을 찾아 광주 농업발전 위한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이현호 본부장은 2일 임곡농협(조합장 기재만) 관내 딸기 재배 농가를 방문해 본격 출하철을 맞춘 딸기의 작황과 출하 상황 등을 살펴보고 농업 현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소비자 유통 혁신과 중소농민의 소득 안정, 소비자에 신선한 먹거리 제공에 앞장서고 있

는 로컬푸드의 역할과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와 극복을 위한 농협의 지원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현호 본부장은 “현제 우리 농촌은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앞으로 우리지역 맞춤형 실익지원사업을 통한 위기극복으로 농업·농촌 발전을 선도하는 광주본부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행정 펼칠 것”

광주국세청 시무식 개최

광주국세청(청장 양동구)은 2일 시무식과 신년 인사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양동구 청장과 직원들은 이날 오전 광주공원 현충탑과 4·19혁명 기념탑을 찾아 신년 참배식을 갖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렸으며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이후 광주국세청 직원 100여명은 활기찬 새해 시작을 다짐하면서 청사 주변을 돌며 플로깅(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어 열린 시무식에서 양동구 청장은 “올해도 경기회복 둔화 등으로 여러 난관이 예상되지만, 광주청 직원들의 역량과 지혜를 한 곳으로 모으고, 서로 간의 소통과 화합, 공감을 통해 세정 전반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며 “올 한해도, 힘차게 도약하며 행복한 광주청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국세청을 비롯한 산하 세무서에서도 ‘김창기 국세청장 신년사’를 대독하는 등 관서별로

2024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수미 LH 광주전남본부장 취임

정수미(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15대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이 2일 취임했다.

정수미 본부장은 광주 출신으로, 1991년 한국토지개발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사해 본사 주택설계처, 행복주택처, 공공주택사업처, 도시경관단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첫 여성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이다.

정 본부장은 풍부한 현장경험과 탁월한 리더십을 갖추었다는 평판을 받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주거취약계층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수미 본부장은취임식에서 “고향에서 2년간 건설사업처장으로 근무하고, 다시 지역본부장으로 함께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LH혁신방안 이행이라는 엄중한 상황속에서 공사 재무구조 개선과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삼성 ‘2024 삼성 명장’ 15명 선정 ‘역대 최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제조 기술, 품질 등 각 분야에서 사내 최고/기술전문가를 의미하는 ‘2024 삼성 명장’ 15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사내 최고 기술전문가를 육성하고 직원들의 성장을 독려하기 위해 2019년부터 삼성 명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삼성전자 10명, 삼성디스플레이 2명, 삼성전기 2명, 삼성SDI 1명 등 총 15명의 직원을 명장으로 선정했다. 이는 제도 신설 이후 최대 규모다.

삼성전자에서는 냉장고 발표 분야 전문가 장원(55) 명장, 37년 경력의 금형 전문가 이세준(54) 명장, 네트워크사업부 최고 실적을 달성한 천영일(51) 명장, 반도체 클린 설비 전문가 명영광(51) 명장, 전력계통 전문가 박기동(52) 명장 등이 선정됐다.

신상욱(53) 명장과 이형중(53) 명장(이상 삼성디스플레이), 조병래(53) 명장과 임경환(54) 명장(이상 삼성전기), 최영진(52) 명장(이상 삼성SDI) 등도 이름을 올렸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69.81(+14.53)
↑ 코스닥	878.93(+12.36)
↑ 금리(국고채 3년)	3.240(+0.086)
↑ 환율(USD)	1300.40(+12.40)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7602억 투입...전기요금 특별 지원

전문인력 활용 맞춤 컨설팅 208억...‘멘토링 서비스’ 시범 도입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부터 7602억원 규모의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고금리·고물가 속 에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차별화된 제품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및 인프라 강화 등 세 가지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의 통합공고에 포함된 소상공인 융자 사업은 올해부터 분리해 별도 공고한다. 융자 사업 규모는

지난해 3조원에서 올해 3조7100억원으로 늘었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 지원 규모는 4183억원으로 올해 252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한시적으로 신설되고 소상공인 경영 응원 3종 패키지에 포함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는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150억원으로 증액됐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지원 규모는 1174억원으로 전문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컨설팅(208억원)을 제공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성공한 선배 사업가의 기술·노하우를 전수하는 ‘멘토링 서

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및 인프라 강화에는 2245억원이 투입된다. 비대면 경제 체제로의 전환에 맞춰 스마트상점·공방 예산이 확대돼 전국 약 8000곳의 소상공인 사업장·공방에 디지털 기술이 보급될 예정이다.

스마트기술을 패키지로 보급하는 ‘미래형 스마트상점’을 올해 약 400곳 보급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나가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방’을 400곳 구축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